

觀音寺 三層石塔

地覆石幅 一・四八五m 塔總高一・三九五m 基壇高七八cm 逸名寺址
五層石塔 下甲石幅 一・八五五m 塔總高三・九八m 上層基壇高七三cm

(코-스)

- ① 溫陽驛下車↓驪時行岻→스↓牙山邑下車↓兩寺址
- ② 驪時下車↓神心寺↓靈仁山越↓兩寺址

百濟土器의 數例

洪 思 俊

百濟土器는 年來로 扶餘를 中心하여서 許多히 發見된다. 그 中에서 가장 異例의 數種을 들어 아래에 紹介한다.

(가) 西紀一九五二年 三月 二十六日 扶餘博物館舍西側에 小井을 開鑿 하던 中 地下二尺餘에서 瓦片과 함께 出土된 것이다. 色은 灰白色이며 器質土가 매우 稠아 보인다. 그 形態는 靑銅鉢의 上部에 淺(淺)을 부친 것 같은데 그 전이 圖面(가)와 같이 左右에 淺이 同心圓으로 되어 있다. 高八・六cm 口徑一四・四cm

(나) 西紀一九六〇年 二月 十八日 扶餘 開城專賣廳 人蔘製造工場敷 地를 (東南里) 整地할 때에 地下三尺餘에서 發見된 것이다. 色은 灰色器 質土는 稠은 粘土(扶餘邑附近)로 되었다. 形態는 器口가 넓고 高가 얇으며 그릇 굽이 器體에 比較해서 매우 얇다. 一見해서 家庭에서 使用 하는 甗甗반같이 되었다. 高五・五cm 口徑二五cm

(다) (1) 扶餘邑 鹽倉里에서 一括遺物로 西紀一九六〇年 十二月 七日 入手한 것이다. (A)는 扶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니 (B)는 보기 드문 壺로 안다. 口邊아래 肩部에는 송곳같은 것으로 鋸齒紋을 一條 돌렸으며

腹部 아래에는 凹帶가 鋸齒紋과 平行해서 돌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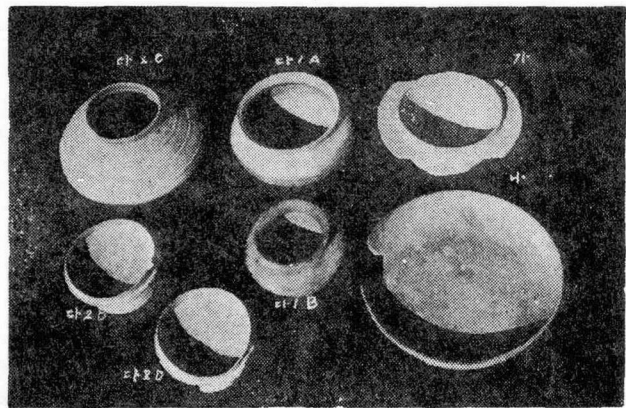
- (A) 高一〇・三cm 口徑一七・四cm
- (B) 高九・二cm 口徑一〇・一cm

그런데 發掘當時의 狀況은 (A) 器에 (B) 器를 올려놓고 다 시 (다) (2)의 (D) 器를 덮어 의뢰 있었다고 한다.

(다)의 (2) 같은 鹽倉里에서 出土되었으나 發見地點은 다르고 (C) 器를 (D) 器로 덮어 의뢰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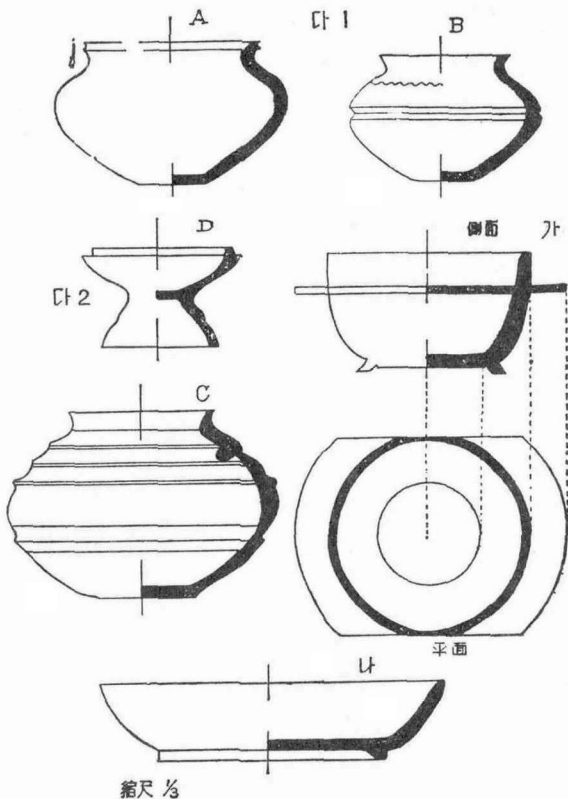
(C) 器는 黝黑色의 器體에 比하여 口部가 적다. 家庭에서 使用하는 藥단지 같은나 腹部가 몹시 불룩하다. 큰 瓶의 頭部를 자른 모양 같다. 肩部에 三條의 平行 凸帶가 돌러 있고 腹下部에 또한 同間隔의 凹帶가 돌러 있으며 器底에는 鱗形같은 細目이 雜多히 彫刻되어서 있다. 推測컨대 加熱에 必要한 措施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高一三・六cm 口徑一〇・四cm

以上 (다)의 (1) (다)의 (2) 器들은 生時에 使用한 것을 墓에 副葬器로 넣을 적에 큰 그릇안에 작은 것을 차례로 겹쳐 놓고 작은 그릇으로 덮었던 것으로 推想된다.



四天王像甓罍의 一例

秦弘燮



四天王像罍은 過去에 數個 發見되었으니 모두 四天王寺址에서 發見된 것들이며 그 中에는 鮮명한 綠釉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不幸히 모두 下半部만으로 上半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慶州博物館에는 一九二三年 日人 骨董商으로부터 購入한 四天王像罍 二個分 八片이 있는데 完形은 이를 수 없으나 그 中 一個分은 매우 貴重한 例로 四天王像의 顔面을 包含한 右上半部를 볼 수 있다. 罍의 原形은 縱約八十cm, 橫約七十cm, 厚八cm로 過去에 發見된 四天王像 罍과 同一한 크기다. 下半部는 惡鬼의 손이 남을뿐 四天王像의 顔面 下半以下가 全失되었다.

像 周圍에는 豪華한 裝飾이 있는 輪廓을 들리되 下部가 直線인 것은

이미 알려진事實이지만 上部는 半圓을 그리고 있다. 上部兩隅에 생기는 間地에는 勁麗한 飛雲文이 있고 輪廓上部 中央에 도 寶相華文같은 것이 陽刻되었다. 此外에 남아 있는 天衣자락은 다른 罍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罍에서 特히 興味를 끄는 것은 顔面이다. 머리에는 甲兜를 썼으며 그 頂上에는 花形이 突혀있다. 두 눈은 크게 부릅떴고 兩眉의 表現亦 怒形을 이루었다. 顔面兩側에는 鳥翼形이 있는데 아마도 顔面을 保護하는 甲冑의 一端인가 한다.

顔面뿐 아니라 全體의 彫法이 매우 雄勁하며 新羅統初의 鬼面瓦에서 보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特히 感恩寺址 西三層石塔에서 發見된 舍利藏 置中の 四天王像 頭部와 類似한은 더욱 興味있는 일이다. 이 罍의 發見 經緯에 對하여는 알려진 바 없으나 出土地가 慶州市 排盤里로 記錄된 것을 보면 아마도 四天王寺址에서 發見된 것인 듯하다. 齋藤忠著「朝鮮古代文化의 研究」에 이 罍의 圖版을 掲載하였으나 本文에서는 이에 對하여 言及하지 않았다.

考古美術 卍

◎ 李朝佛畫의 新例(觀音三十二應驗)

日本東京 大丸百貨店에서 去二月十日부터 十五日까지 開催된「智恩院秘寶特別展」에서「中國明代畫」라고 標記된 佛畫 一幅이 同人 黃壽永氏에 의하여 李朝王室

